로컬뉴스

김제보건소 결핵예방 캠페인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는 '제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28일 재래시장 일원에서 결핵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결핵조기 퇴치 분위기 조성 및 결핵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홍보용 리플릿과 일회용밴드, 마스크 등을 배포하며 결핵예방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오늘날 결핵은 잊혀진 질병으로 인식되어 결핵을 퇴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OECD 회원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완치가능한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식 부족과 환자의 관리 의지부족으로 한해 결핵환자가 4만여 명이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 경찰 불법주차 단속

김제시(시장 이건식)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28일부터 김제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청회전교차로~터미널사거리~김제여고, 터미널사거리~중앙초~구산회전교차로, 터미널사거리~비사벌사거리~홈플러스~양지삼거리 등 3구역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정차위반 단속 전담반을 투입한다.

특히, 횡단보도를 비롯하여 인도, 버스승강장 주변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현저히 방해하는 주요구간은 즉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 적발 시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의 보호구역은 각각 8만원,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농업인에 소득기금 융자

정읍시는 지난 24일 제2청사에서 '2016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심의 위원회'를 열고 모두 43농가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8억1천8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위원회는 양심묵 위원장(정읍시 부시장)의 주재로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융자금은 세대 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고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이 사업은 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의 자립 기반과 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보증인 없이 정읍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오고 있다.

한편 시는 지원 대상자들의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해 내달 중에 융자지원을 완료해 적절한 시기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다문화가정 폭력예방 교육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가 부안군 다문화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들에게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

이를 위해 부안서는 28일 부안군 다문화지원센터를 찾아 30여 다문화가족들에게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진솔한 의견 나눔과 함께 정착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안서는 이날 범죄예방교실은 다문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와 자발적인 신고와 함께 절차 및 제반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였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이 지난 24일부터 3일 간 2016 성공 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 및 청년창업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부안군, 귀농 박람회 참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서 성공적 정착 위한 사례강연 · 정책 홍보

부안군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서울특별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6 성공 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 및 청년창업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열린 이번 박람회는 '농어촌 행복 라이프, 출발에서 성공까지'라는 주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하려고 마련됐다.

박람회에 농작물 생산 뿐만 아니라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자원을 이용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6차 산업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정책홍보관, 귀농귀촌상담관, 귀농산업관, 성공 귀농과 행복귀촌의 사례강연장 및 세미나 관 등으로 운영됐다.

부안군에서는 (사)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 회원 6명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가해 귀농귀촌을 위한 사전준비부터 지원정책, 제4회 부안마실축제 홍보, 관광홍보물 배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농촌정착 지원사업과 귀농인 집 리모델링 사업, 체재형 농가실습단지 조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안만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시책과 군정 주요 정책 등을 중점 홍보했다.

이와 함께 군은 적극적인 성공 귀농·청년창업을 유치하려고 관내 귀농인들이 생산한 버섯, 울금, 아로니아 등 다양한 농·특산물 가공품을 전시해 각광을 받았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 귀농귀촌 전입세대가 최근 3년 간 폭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며 "앞으로도 박람회·홍보관·귀농학교 운영 등을 통해 귀농귀촌, 청년창업 유치 뿐만 아니라 귀향운동도 역점사업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시장공약사업 이행평가 보고회

공약이행평가단 등 40여명 참석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28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과 실과소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 이행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금년도가 민선6기 2년차에 접어들어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그간 추진상황과 사업별 자체평가결과를 공약이행평가단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공약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추진방향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토의와 질의응답으로 심도있게 이뤄졌다.

김제시의 민선 6기 주요 공약사업은 「새만금 경제중심도시 김제」,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김제」, 「농생명 허브도시 김제」, 「시민의 삶이 안전하고 쾌적한 김제」, 「다함께 잘사는 김제」 등 5개 분야 38개사업이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먼저, 지난해 농업기계박람회 개최와 원스톱 고용복지+센터를 개소하여 2개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새만금 김제뜰 찾기 새만금2호 방조제의 김제 관할권을 확보하여 1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동서통합도로 기공식 등 새만금 내부개발의 착실 추진 지원, 지평선산업단지의 65%분양률과 26개의 기업유치, 백구농공단지 내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유치, 대한민국종자수도 조성을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착공, 호남권종자종합처리센터 유치, 김제자영고의 마이스터고 지정, 그리고 지난 18일 종자생명산업 특구 지정, 지평선축제 4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 그 룹홈을 171개소로 확대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새만금배후복합물류단지와 모악산종교화합지대 조성 사업은 여건변화 등으로 중장기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추진방향 조정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전시 중점관리자원 확인 점검

17개 동원업체 대상

정읍시는 28일 전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갖고 17개 동원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함께 전시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시와 읍·면·동, 군부대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동원 업체별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점검하고 가용자원과 변동자원의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시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회에서는 전시 수송관리 대책으로 ▲동원차량 부족 시 대체 차량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자동차 등 764대의 동원차량에 대한 관리를 전산화하여 일원화할 것 ▲정비업체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의무화 할 것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 운전원 등 조작인력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을 수시 점검하여 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동원인력에 대한 교육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시 보건의료관리 대책으로는 의료인력과 시설이 동시 동원되는 정읍아산병원과 사랑병원, 박병원, 전라병원, 한국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은 ▲전시에 필요한 의약품 및 전시 혈액량을 사태발생 1개월 전까지 확보하고 ▲현장 응급의료소와 간이진료소 설치, 기동의료반을 편성·운영할 것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역기동반을 운영할 것 등이 제시됐다.

특히 "전시 인명구조 및 부상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인력은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1천616명이 소요되는데, 족한 간호인력은 전북과학대학교 간호대학 등에서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생기 시장은 "북한은 핵무장으로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고 일본 아베 정부는 역사를 날조해 독도를 영토분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없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유비무환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 8명으로 구성된 베트남 전통 춤 자조 모임은 제4회 부안마실축제에서 섬세하고 아름다운 베트남 전통 춤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베트남 이주여성 마실축제 춤 공연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조모임팀 연습 '구슬땀'

부안으로 시집온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들로 구성된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조모임팀이 부안마실축제 공연연습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 8명으로 구성된 베트남 전통 춤 자조 모임은 지난 2012년 3월 결성돼 관내·외 각종 축제에서 초청공연을 펼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부안마실축제에서도 인기 프로그램으로 인정받는 등 부안군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5월 6일부터 3일 간 열리는 제4회 부안마실축제에서는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베트남 노래와 베트남 국화인 연꽃을 연상케 하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베트남 전통 춤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베트남 전통 춤 자조 모임과 함께 제4회 부안마실축제에서는 '多문화! 多함께! 렛츠고!'라는 타이틀로 다문화 음식 부스, 다문화 의상체험, 다문화 퍼레이드를 통해 관광객과 다문화가족이 소통·공감·동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